

“국제사회 끊임없는 조정 이뤄지는 UN 현장 인상 깊어”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UN 한국대표부 대사와 간담회
22~30일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일원서 국외 활동

전남교육공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2기 학생외교관들이 22~30일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일원에서 국외 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6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UN) 본부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를 방문해 차지훈 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국외활동의 핵심 일정 중 하나로, 학생들은 유엔을 찾아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차 대사로부터 유엔의 역할과 외교 현장에 대한 설명

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차 대사는 국제사회 현장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 학생들을 격려하며, 유엔이 인류의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했다. 또 전 인류적·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학생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을 찾아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차 대사로부

로 함께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개인의 자질을 주제로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제사회 문제 해결이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유엔이 평화를 논의하는 공간이면서도 현실 속 이해관계와 선택 사이에서 끊임없는 조정이 이뤄지는 현장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은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과 외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국제사회 현장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실천하고 외교 실무를 직접 체험한 뒤 30일 귀국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들이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를 방문해 차지훈 대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바람 의료복지회,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인증기관 ‘테크숍’ 인증

구글·마이크로소프트·OpenAI 등 IT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화순에 있는 바람(HOPE) 의료복지회(회장 임영창·사진)가 최근 전 세계 비영리 민간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인증기관인 ‘테크숍(TechSoup)’으로부터 약 한 달간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공식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증을 받아 논길을 끌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바람(HOPE) 의료복지회는 지난 25일 구글(Google), 마이크

로소프트(Microsoft), OpenAI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파트너십 체결은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 중 구글과 OpenAI에서 공동으로 인증을 받은 상위 1% 안에 드는 수준으로 바람(HOPE) 의료복지회의 공익성을 검증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위상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세계적 인 기업들(테슬라, 알리바바 등)의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증을 받게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지회의 선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다양하게 넓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바람 의료복지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임영창 바람(HOPE) 의료복지회장(목사)은 “앞으로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공정·투명 경영체계 국제표준…대내외 신뢰 확보

광주문화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적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예방·감지·대응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재단은 2025년 12월 15일 국제 표준 ISO 37001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은 재단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추진해 온 청렴·윤리경영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은 그동안 대상별 맞춤형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명절 기간에는 불공정거래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며,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



광주문화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력을 이어왔다.

배동한 사무처장은 “이번 ISO 37001 인증은 재단 전 직원이 함께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투명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나주축협은 지난 27일 나주시에 지역 내 저소득 다자녀가정을 돕기 위해 백미 60포를 기탁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시설·나눔단체에 쌀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박병철)는 최근 회원사에서 기증한 백미 114포를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나눔 단체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했다.

전달된 쌀은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 천원의 밥상(해프는 식당), 천원한끼(우산점·월곡점), 광산구자원봉사센터 등에 전달돼 취약계층 급식 지원과 돌봄 현장

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병철 회장은 “회원사들의 따뜻한 뜻이 담긴 이번 나눔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최근 회원사에서 기증한 백미 114포를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나눔 단체에 전달했다.

나주축협,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백미 60포 기탁

2021년부터 나눔 실천 지속…지역사회에 온기 전해

나주축협(조합장 나상필)이 지역 내 저소득 다자녀가정을 돕기 위해 백미 6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주축협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나주축협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백미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취

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는 나주축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다자녀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축협은 지역 농축산업 발전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대병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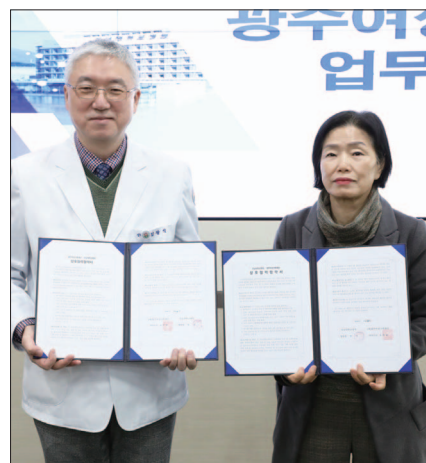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 학대 피해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연계, 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의료·심리·사회 통합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기반 아동보호 정책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광주형 특화 돌봄 서비스 확신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광주새싹치킴이 병원’으로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치료를 전담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의료적 판단과 전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단의 아동보호 사업에 실질적인 힘을 보탬 예정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역시



그동안 축적해 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연구 성과를 전남대병원의 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윤현주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대응의 실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시 119특수대응단은 28일 대응단 작전실에서 ‘2026년 상반기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통합대응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형·복합 특수재난 신속·효율 대응”

광주119특수대응단,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협의회 개최

광주시 119특수대응단은 28일 대응단 작전실에서 ‘2026년 상반기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통합대응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역 내 대형·복합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해 통합대응 능력을 높이고, 구조기법과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 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광주·전남·전북·제주 119특수대응단 등 호남권역 5개 특수구조기관의 지휘관과 훈련 담당자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 통합대응 및 합동훈련 실적 공유 △2026년 통합

대응 운영방안 협의 △2026년 합동훈련 테마 등 세부 추진계획 논의 등이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대형·복합 특수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황인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운영협의회는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협력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홍 기자 photo25@